

上古音에서 中古音에 걸친 舌內鼻音韻尾와 喉內鼻音韻尾의 交替*

陳宇昕 ** 李京哲 ***

-차 례-

1. 서론
2. 『詩經』에서 반영하는 n韻尾와 η韻尾의 교체
 - 2.1. 眞部和 耕部에서 반영하는 n韻尾와 η韻尾의 교체
 - 2.2. 다른 韻部에서 반영하는 n韻尾와 η韻尾의 교체
3. 『廣韻』에서 반영하는 n韻尾와 η韻尾의 교체
 - 3.1. 眞部和 耕部字에서 반영하는 n韻尾와 η韻尾의 교체
 - 3.2. 蒸·文·元部字에서 반영하는 n韻尾와 η韻尾의 교체
 - 3.3. 규정하기 어려운 한자에서 반영하는 n韻尾와 η韻尾의 교체
4. 결론

*이 논문 또는 저서는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분야 중견연구자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1S1A5A2A01063017).

**동국대학교 일본학과 대학원생 제1저자. yoohsinchen@dgu.ac.kr

***동국대학교 일본학과 정교수 교신저자. kanzi22@empas.com

[국문초록]

본고에서는 『詩經』 및 『廣韻』에서 나타나는 陽聲韻尾 n과 ㄱ의 다음자관계를 중심으로 上古音에서 中古音에 걸친 陽聲韻尾 n과 ㄱ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詩經』에서 陽聲韻尾 n과 ㄱ의 押韻관계는 대부분 眞部和 耕部の 교체에 있으며, 일부 학자가 이러한 교체를 통해서 眞部를 in과 iŋ으로 나누었지만, 眞部를 두 韻部로 나누어 보는 것보다 이를 眞部和 耕部の 교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矜]字의 聲符는 [矜聲]이 아닌 [令聲]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矜]字는 [命·令·零·苓]字와 같이 詩經단계에서 n韻尾인 眞部, AC단계에서는 모두 ㄱ韻尾로 반영된다. 한편 같은 聲符인 한자가 반드시 詩經단계 같은 韻部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다. [靑聲]과 [豊聲] 일부 n韻尾와 ㄱ韻尾의 교체는 詩經단계 이전에 이미 존재했을 가능성이 크다.

『廣韻』에서 반영하는 n韻尾와 ㄱ韻尾의 다음자 교체는 果반수가 4等字 先韻과 靑韻의 교체에 해당한다. 따라서 n韻尾와 ㄱ韻尾의 교체는 그 主母音이 前舌인 경우에 가장 교체되기 쉬우며, 이어서 中舌이며, 後舌이 가장 드물다.

주제어: 상고음, 중고음, 양성운미, 시경, 다음자

1. 서론

陽聲韻尾란 것은 음절의 말음이 n·m·ŋ인 것을 의미한다. 중국의 詩歌는 주로 主母音, 韻尾, 聲調가 같은 한자끼리만 押韻하며, 그 韻尾가 각각 n·m·ŋ인 한자들은 원칙상 서로 押韻할 수 없다. 하지만 中古音(AC)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上古(OC)의 韻文자료 『詩經』에서 때때로 n韻尾인 한자가 ŋ韻尾인 한자와 押韻하는 현상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小雅·十月之交>에서 [燗燗震電, 不寧不令]이란 韻文이 있으며, 先韻인 [電]字가 青韻인 [令]字와 押韻한다. 『詩經』뿐만 아니라, 多音字에서도 이러한 현상을 발견할 수 있는데, [令]字는 『廣韻』에서 仙韻·青韻·清韻의 교체가 존재하며, 諧聲관계에서도 [堅]字는 先韻이고, 諧聲字인 [鏗]字는 耕韻字에 해당하여, OC에서 AC 사이에 n韻尾가 ŋ韻尾로 교체되는 현상이 보인다. [矜]字의 경우 그 聲符는 侵韻인 [令聲]이기 때문에 m韻尾에 속하지만, AC에서는 蒸韻 ŋ韻尾에 해당한다. 한편 <詩經·小雅·菀柳>에서는 오히려 眞部인 [天·臻]과 押韻하여 n韻尾로 반영되며 같은 한자가 聲符, 中古音, 詩經音에서 그 韻尾가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

따라서 『詩經』의 韻文자료 그리고 『廣韻』에서 반영하는 n韻尾과 ŋ韻尾의 다음자 관계를 중심으로, 기존의 학설 및 현대 중국 방언을 결부하여 上古音에서 中古音에 걸친 舌內鼻音韻尾와 喉內鼻音韻尾의 교체에 대해서 살펴 보고자 한다. 『詩經』 韻腳字에 대한 규정은 王力(2012:130-372)과 Baxter(1992:583-743)을 기준으로 하며, 丘彥逵(2019:1-211)를 참고로 한다. 王力과 Baxter 두 학자 중 한 명이 韻腳字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고에서도 韻腳字로 인정하지 않는 원칙으로 한다. 한편 Baxter과 鄭張尚芳을 비롯한 6母音說 학자들은 元部를 an部(ar部)·en部(er部)·on部(or部)와 같이 하나의 韻部를 2개, 또는 2개 이상으로 나누어서 보고 있지만, 본고에서는 韻尾를 중심으로 연구함에 따라 원칙상 보편적으로 인정받는 30韻部 체계를 수용하며 韻部를 나누어서 보지 않는다. 한편 사용하는 『廣韻』을 비롯한

각종 韻書와 古籍자료는 www.kaom.net에서 정리된 자료를 이용한다.

중국어음은 시대별로 약칭하며 크게 上古音(Old Chinese)를 OC로, 中古音(Ancient Chinese)를 AC로, 近代音(Recent Chinese)을 RC로, 現代音(Modern Chinese)를 MC로 약칭한다. 그 중에서 OC는 諧聲관계와 『詩經』의 韻文에서 반영하는 차이점이 존재하며, 기본적으로 諧聲시대를 初期上古音(Early Old Chinese), 詩經시대를 中期上古音(Middle Old Chinese)로 나누었으며, 각각 EOC와 MOC로 약칭한다.

2. 『詩經』에서 반영하는 n韻尾와 η韻尾의 교체

2.1. 眞部와 耕部에서 반영하는 n韻尾와 η韻尾의 교체

眞部和 耕部에서 반영하는 n韻尾와 η韻尾의 교체를 두 가지로 나누어서 다루기로 한다. 첫째는 [命·令·苓·零·領]字의 문제이며, 둘째는 [矜]字에 관한 문제이다. 먼저 첫째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자.

<표1> 詩經에 걸친 [命·令·苓·零·領]의 押韻 현상

| 순서 | 자료명 | 韻脚字 | 王力 | | 陳新雄 | Baxter | 音韻 |
|----|---------|-----|------|------|------|--------|-------------------------|
| | | | 2010 | 2012 | 2018 | 1992 | |
| 01 | 邶風·簡兮 | 榛 | 眞en | 眞en | 眞en | 眞in | 莊臻開3平 |
| | | 苓 | 耕eng | 眞en | 眞en | 眞ing | 來青開4平 |
| | | 人 | 眞en | 眞en | 眞en | 眞in | 日眞開3甲平 |
| 02 | 邶風·定之方中 | 零 | 耕eng | 眞en | 眞en | 眞ing | 來先開4平 來青開4平 來青開4去 |
| | | 人 | 眞en | 眞en | 眞en | 眞in | 日眞開3甲平 |
| | | 田 | 眞en | 眞en | 眞en | 眞in | 定先開4平 |
| | | 淵 | 眞en | 眞en | 眞en | 眞in | 影先合4平 |
| | | 千 | 眞en | 眞en | 眞en | 眞in | 清先開4平 |
| 03 | 邶風·蟋蟀 | 人 | 眞en | 眞en | 眞en | 眞in | 日眞開3甲平 |
| | | 姻 | 眞en | 眞en | 眞en | 眞in | 影眞開3甲平 |
| | | 信 | 眞en | 眞en | 眞en | 眞in | 心眞開3甲去 |

| 순서 | 자료명 | 韻腳字 | 王力 | | 陳新雄 | Baxter | 音韻 |
|----|---------|-----|------|------|------|--------|--------|
| | | | 2010 | 2012 | 2018 | 1992 | |
| | | 命 | 耕eng | 眞en | 眞en | 眞ing | 明庚開3去 |
| 04 | 齊風·東方未明 | 顛 | 眞en | 眞en | 眞en | 眞in | 端先開4平 |
| | | | | | | | 透先開4去 |
| | | 令 | 耕eng | 眞en | 眞en | 眞ing | 來仙開3甲平 |
| | | | | | | | 來清開3甲平 |
| | | | | | | | 來青開4平 |
| | | | | | | | 來清開3甲去 |
| | | | | | | 來青開4去 | |
| 05 | 齊風·盧令 | 仁 | 眞en | 眞en | 眞en | 眞in | 日眞開3甲平 |
| | | | | | | | 來仙開3甲平 |
| | | 令 | 耕eng | 眞en | 眞en | 眞ing | 來清開3甲平 |
| | | | | | | | 來青開4平 |
| | | | | | | | 來清開3甲去 |
| | | | | | | | 來青開4去 |
| 06 | 唐風·揚之水 | 人 | 眞en | 眞en | 眞en | 眞in | 日眞開3甲平 |
| | | 鄰 | 眞en | 眞en | 眞en | 眞in | 來眞開3甲平 |
| | | | | | | | 來眞開3甲去 |
| | | 命 | 耕eng | 眞en | 眞en | 眞ing | 明庚開3去 |
| 07 | 唐風·采芑 | 芑 | 耕eng | 眞en | 眞en | 眞ing | 來青開4平 |
| | | 顛 | 眞en | 眞en | 眞en | 眞in | 端先開4平 |
| | | 信 | 眞en | 眞en | 眞en | 眞in | 心眞開3甲去 |
| | | 鄰 | 眞en | 眞en | 眞en | 眞in | 來眞開3甲平 |
| 08 | 秦風·車鄰 | 顛 | 眞en | 眞en | 眞en | 眞in | 端先開4平 |
| | | | | | | | 透先開4去 |
| | | 令 | 耕eng | 眞en | 眞en | 眞ing | 來仙開3甲平 |
| | | | | | | | 來清開3甲平 |
| | | | | | | | 來青開4平 |
| | | | | | | | 來清開3甲去 |
| | | | | | | 來青開4去 | |
| 09 | 小雅·節南山 | 頌 | 耕eng | 眞en | 耕eŋ | 耕eng | 來清開3甲上 |
| | | 騁 | 耕eng | 耕eŋ | 耕eŋ | 耕eng | 徹清開3甲上 |
| | | 電 | 眞en | 眞en | 眞en | 眞in | 定先開4去 |
| 10 | 小雅·十月之交 | 令 | 耕eng | 眞en | 眞en | 眞ing | 來仙開3甲平 |
| | | | | | | | 來清開3甲平 |
| | | 令 | 耕eng | 眞en | 眞en | 眞ing | 來青開4平 |
| | | | | | | | 來清開3甲去 |
| | | | | | | | 來青開4去 |
| 11 | 小雅·小宛 | 令 | 耕eng | 眞en | 眞en | 眞ing | 來仙開3甲平 |
| | | | | | | | 來清開3甲平 |
| | | | | | | | 來青開4平 |
| | | | | | | | 來清開3甲去 |
| | | 鳴 | 耕eng | 耕eŋ | 耕eŋ | 耕 | 明庚開3平 |

| 순서 | 자료명 | 韻腳字 | 王力 | | 陳新雄 | Baxter | 音韻 |
|----|-------|-----|------|------|------|--------|-----------------|
| | | | 2010 | 2012 | 2018 | 1992 | |
| | | 征 | 耕eng | 耕eŋ | 耕eŋ | 耕 | 照清開3甲平 |
| | | 生 | 耕eng | 耕eŋ | 耕eŋ | 耕 | 山庚開2平 山庚開2去 |
| 12 | 小雅·桑扈 | 領 | 耕eng | 眞en | 耕eŋ | 眞ing | 來清開3甲上 |
| | | 屏 | 耕eng | 耕eŋ | 耕eŋ | 耕 | 幫清開3甲平 |
| | | | | | | | 並青開4平 幫清開3甲上 |
| 13 | 小雅·采芣 | 命 | 耕eng | 眞en | 眞en | 眞ing | 明庚開3去 |
| | | 申 | 眞en | 眞en | 眞en | 眞in | 審眞開3甲平 |
| 14 | 大雅·假樂 | 人 | 眞en | 眞en | 眞en | 眞in | 日眞開3甲平 |
| | | 天 | 眞en | 眞en | 眞en | 眞in | 透先開4平 |
| | | 申 | 眞en | 眞en | 眞en | 眞in | 審眞開3甲平 |
| | | 命 | 耕eng | 眞en | 眞en | 眞ing | 明庚開3去 |
| 15 | 大雅·卷阿 | 天 | 眞en | 眞en | 眞en | 眞in | 透先開4平 |
| | | 人 | 眞en | 眞en | 眞en | 眞in | 日眞開3甲平 |
| | | 命 | 耕eng | 眞en | 眞en | 眞ing | 明庚開3去 |
| 16 | 大雅·韓奕 | 甸 | 眞en | 眞en | 眞en | 眞in | 定先開4去 |
| | | 命 | 耕eng | 眞en | 眞en | 眞ing | 明庚開3去 |
| 17 | 大雅·江漢 | 人 | 眞en | 眞en | 眞en | 眞in | 日眞開3甲平 |
| | | 田 | 眞en | 眞en | 眞en | 眞in | 定先開4平 |
| | | 命 | 耕eng | 眞en | 眞en | 眞ing | 明庚開3去 |
| | | 年 | 眞en | 眞en | 眞en | 眞in | 泥先開4平 |

위의 <표1>과 같이 王力(2010:55-64)¹의 기준으로 보면 眞部和 耕部の 교체에 해당하는 押韻자료는 9, 11, 12를 제외하고 나머지 총 14례 반영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 해당하는 眞部字와 교체하는 耕部字는 [命·畀·零·荅·領]이다. [命]字는 『說文解字』에서 [从口从畀]으로 주석을 달고 있기 때문에 [畀]字와 동원관계로 볼 수 있다. 이는 Karlgren(1964:201-202, 217-218)에서 제시한 周代 銘文 [畀]과 [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龐光華(2015:212)에 의하면 金文 <免盤>의 銘文에서 [命]字에 [口]가 없었으며, 고대 문자학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畀]字가 [命]字보다 오래되었었으며, 甲骨文에는 [畀]字만 있었고, [命]字가 없었으며, 西周의 金文에서 가장 먼저 [命]字가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命]字는 [畀]字에서 과

1 본고에서 사용하는 王力(2010)과 王力(2012), 王力(2013)은 모두 재판이며, 원작은 각각 1985년, 1980년, 1992년에 출판된 것이다.

생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한편 [零·荅·韻]은 『說文解字』에서 각각 [从雨令聲]·[从艸令聲]·[从頁令聲]으로 주석을 달고 있어, [令]字와 같은 諧聲 관계로 볼 수 있다. 따라서 『詩經』의 韻文자료에서 眞部字와 押韻하는 耕部字는 서로 밀접한 동원관계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최초로 上古韻部를 나눈 清代의 학자 顧炎武(1982:89)²는 이러한 특징에 관해서 주목하여, [令]字에 [力珍反...後人讀郎丁反誤]로 주석을 달았다. 즉 顧炎武의 관점은 OC의 [令]字가 AC._ɕliɛm이었으며, AC의 AC._ɕliɛŋ을 잘못된 발음으로 보고, 다른 [零·荅]도 마찬가지로 [力珍反]으로 규정했으며, 顧炎武(1982:549)에서는 青韻인 [荅·零·令]을 眞·諄·臻·文·殷(欣)·元·魂·痕·桓·刪·山·先·仙韻과 같이 [第四部]³로 규정하였다. 물론 顧炎武는 [郎丁反]을 [誤] 즉 [잘못된 음]으로 규정하였는데, 위의 표와 같이 11번의 押韻관계를 설명할 수 없다는 점은 문제이지만, 최초로 『廣韻』의 음운계통을 이탈해서 『詩經』에 걸친 押韻의 특징을 중요시한 점을 장점으로 볼 수 있다. 뒤에서 언급하겠지만 Baxter는 『廣韻』을 지나치게 의거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잘못 해석한 점이 있다. 王力(2012:123-124)⁴도 顧炎武의 관점과 같이 [命·令·零·荅·韻]字를 眞部로 규정했지만, 이후에 王力(2010:56)은 다시 耕部字로 수정했다. 王力(2010:56)에서 각주로 [命]字와 [令]의 諧聲字를 眞部에서 耕部로 수정한다고 했지만, 그 이유에 대한 언급이 없다가, 王力(2013:173-176)에서 수정한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였다. 그 이유는 清代학자 孔廣森의 『詩聲類』에서 [令·零·荅]字를 耕部로 규정했으며, 王力은 耕部eng과 眞部en이 主母音이 같고, 韻尾가 유사하기 때문에 서로 押韻하게 된 것으로 보고, [令·零·荅]을 眞部에서 耕部로 수정했다고 언급했다. 孔廣森은 주로 『詩經』, 『易經』, 『楚辭』 등 上古韻文을 통해 해석하고 있다. 본고의 연구대상이 『詩經』이므로, 다른 韻文자료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으며, 그 중에서 『詩經』에

2 본고에서 사용하는 顧炎武(1982)은 재판이며, 원작은 1667년에 출판된 것이다.

3 顧炎武(1982:546-555)에서 제시한 <古音表>에서는 총 10개 韻部로 나누고 있으며, 현대 학자들의 용어와 달리 第一部, 第二部...第十部로 명명하고 있다.

4 이는 2012년에 재판된 책이다.

해당하는 입증자료는 아래와 같이 총 여섯 개가 있다.

1) <표1-11>과 같이 <小雅·小宛>에서 [令]字는 [鳴·征·生]과 押韻관계를 이룬다.

2) <표1-9>와 같이 [頌]字는 [騁]字와 押韻관계를 이룬다.

3) <小雅·何人斯>에서 [陳·身]은 [聲]字와 押韻관계를 이룬다.

4) <商頌·那>에서 [淵]字는 [成·聲]과 서로 押韻한다.

5) <周頌·良耜>에서 [人]字는 [盈·寧]과 押韻관계를 이룬다.

6) <大雅·雲漢>에서 [天]字는 [星·羸]과 [人·臻]·[牲·聽]이 서로 押韻한다.

이들은 孔廣森의 체계에서 모두 眞部和 耕部の 교체에 해당하여, 眞部和 耕部の 교체는 [令·零·蒼]字뿐만 아니라 다른 글자도 존재하기 때문에 顧炎武와 같이 [令·零·蒼]을 眞部(第四部)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먼저 1)과 2)는 본고에서도 孔廣森과 같이 押韻관계를 인정하지만, 3)-6)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먼저 3)에 대해서 王力(2012:130-372)과 Baxter(1992:533-743)에서 정리한 押韻자료를 기준으로 보면 모두 [聲]字를 韻腳字로 취급하지 않는다. 4)부터 6)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商頌·那>의 [淵]字, <周頌·良耜>의 [人]字, <大雅·雲漢>의 [天]字는 모두 韻腳字로 인정하지 않는다. 한편 孔廣森이 <大雅·雲漢>의 [人·臻]이 [牲·聽]이 서로 押韻하는 것으로 보고 있지만, 王력과 Baxter는 모두 [人·臻]과 [牲·聽]을 두 가지 押韻관계로 나누어서 보고 있다. 따라서 결국은 위의 <표1-11>과 <표1-9> 그리고 추가적으로 <표1-12>와 같이 王力(2012:95-129)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耕部字와 押韻하는 眞部字는 [令·頌]만 있으며, 모두 [令]字의 諧聲字이다. 이를 통해서 王力(2013:174-176)의 문제점을 보면, 耕部 eng과 眞部 en이 主母音이 같고, 韻尾가 유사해서 서로 押韻할 수 있다고 치면, 왜 [命·令·零·蒼·頌]字 이외에는 다른 耕部字가 없었을까? 陽部 aŋ와 元部 an의 교체, 蒸部 əŋ와 文部 ən의 교체는 왜 없었을까? n韻尾가 ŋ와 유사해서 서로 押韻할 수 있다면, m韻尾와 ŋ韻尾, m韻尾와 n韻尾도 유사하지 않을까? 라는 의문이 생기는 것이다.

따라서 王力(2013:174-176)의 주장보다 王力(2012:95-129)의 주장과 같이 [命·命·零·荼·頷]字를 眞部로 규정하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 이유는 [命·命·零·荼·頷]字를 耕部로 규정한다면 耕部와 眞部の 교체가 총 14번 반영되며, 眞部字로 규정한다면 오직 3번뿐이어서 통계학적 관점으로 보았을 때도 후자가 더욱 타당하다.

Karlgren(1954:305-307, 333-335)은 [命·命·零·荼]을 AC의 jĕn(眞)韻:j uĕn(諄)韻:jĕn(臻)韻:i(w)en(先)韻과 같이 Group IX(眞部)⁵로, [命·頷]을 AC의 일부 (w)æŋ(耕)韻:j(w)ɛŋ(清)韻:i(w)eŋ(青)韻과 같이 Group XXII(耕部)로 분류하고 있다. Karlgren은 이러한 분류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지 않았지만, 위의 <표1>을 통해서 보면, [命·零·荼]이 1·2·3·6·7·13·14·15·16·17번에 해당하며 모두 眞·臻·先韻字와 押韻하고, n韻尾인 특징이 뚜렷하다. 한편 [頷]字는 <표1-9>, <표1-11>에 해당하며, 모두 清·青韻字와 押韻관계를 이루고 있어 ŋ韻尾인 특징이 명확하다. 하지만 이들과 달리 [命]字는 4·5·8·10번에서 先·眞韻字와 押韻하지만, <표1-11>에서는 오히려 庚·清韻字와 押韻한다. 한편 Karlgren(1957:217)은 모든 [命]字의 諧聲字를 liĕng으로 재구하고 있으며, 『詩經』에서 韻腳字로 출현한 [命·荼·零]에 한해서만 liĕng과 liĕn으로 표기했었을 뿐이었다. 따라서 Karlgren과 王力은 모두 [命]과 [命] 그리고 [命]字의 諧聲字를 眞部로 규정해야 할지 耕部로 규정해야 할지 망설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Baxter(1992:298-299, 422-425), 鄭張尚芳(1987:67-90), 潘悟雲(1994:364-372)은 王力, Karlgren과 달리 眞部를 in과 iŋ(ing)으로 나누어 보고 있다. 먼저 Baxter의 관점에서 살펴보자. Baxter는 眞部를 in과 ing으로 나누어서 ing部에 해당하는 한자는 『詩經』단계에서 오직 [命·命]만 들었으며, 어떤 한자를 ing으로 규정해야 할지 확정할 수 없었다. Baxter·Sagart(201

5 Karlgren(1954:211-367)은 韻部の 명명을 로마숫자로 표기했으며, 대부분 학자와의 명명 방식이 다르므로, 본고에서는 괄호 안에 일반적인 韻部 명칭을 추가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4:237-241)는 Baxter(1992:298-299, 422-425)와 같은 관점으로 보고 있지만, 추가적으로 [矜]字를 ing[iŋ]部로 규정했을 뿐이다. [矜]字에 관해서는 뒤에서 다루겠지만, 본고에서는 [矜]字를 甲類韻, 즉 喉內鼻音韻尾로 취급하지 않는다. Baxter는 ing部인 경우는 일부 방언에서 in部와 합병되며, 또다른 방언에서는 eng(耕)部와 합병된 것으로 보고 있다. 위의 표를 통해서 보면 ing>eng으로 변한 방언은 <표1-9·11·12>에 해당하며, 나머지 방언에서는 ing>in으로 변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분류하면, 두 가지 치명적인 문제점이 존재한다. 첫째, [矜]字를 포함하더라도 詩經단계에서 ing部에 해당하는 韻腳字는 [命·令·零·零·頌·矜]과 같이 총 6개 뿐이었다. 둘째, ing部만의 押韻자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교체만 있었을 뿐인데, 단독적으로 押韻하는 예시가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당자를 하나의 韻部로 취급할 수는 없는 것이다. 만약 교체가 있는 한자를 모두 하나의 韻部로 취급해야 한다면, 冬部和 侵部の 교체가 14번이 있었으며, 王力(2012:130-372)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眞部和 蒸部の 교체는 오직 3례뿐이다. 따라서 꼭 나누어야 한다면, 眞部보다 冬部를 먼저 나누어야 하지 않을까?

이어서 鄭張尚芳의 관점을 보자. 鄭張尚芳(1987:67-90)은 眞部和 質部를 in과 iŋ, it과 ik으로 나누었다, 그 이유는 諧聲관계와 주변언어와의 대응관계에 있다. 본고는 陽聲韻尾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質部에 관한 것은 별고에서 다루지만, 眞部에 관한 논술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먼저 先韻인 [奠]字는 淸韻인 [鄭]字와 諧聲관계를 이루며, [履]字는 先韻과 淸韻의 다음자에 해당한다. 한편 [奠]字를 Tibet어의 fiding과 동계관계로 보고 있으며, 오래된 형태를 ing으로 보고 있다. 둘째, [馭]字와 [鏗]字가 諧聲관계를 이루며, 聲符인 [巨]字는 Tibet어의 ging과 대응한다. 셋째, [年]字와 [輦]字가 諧聲관계를 이루며, Cona Menba어의 niŋ과 대응관계를 이룬다. 한편 [暝]字는 先·淸韻, [零]字는 先·淸韻, [尾]字⁶는 臻·耕韻

6 鄭張尚芳의 [瞿]字에 대한 다음자는 『集韻』에 의한 것이며, 본고에서 다음자에 대

등 일부 한자가 다음자로 교체하며, [薪]字는 Tibet어의 sjing과 대응함에 따라 OC에서는 반드시 in이었으며 高母音의 영향으로 η이 n로 통합된 것으로 보고 있다.

<표2> 詩經에 걸친 [臣·年·新·薪·冥]의 押韻 현상

| 聲符 | 韻腳字 | 자료명 | 押韻관계 | | | | | |
|-----|----------------|---------|------|----|----|----|----|----|
| | | | 眞韻 | 臻韻 | 先韻 | 庚韻 | 清韻 | 青韻 |
| 1.臣 | 臣 | 小雅·北山 | 濱均 | | 賢 | | | |
| | 堅 | 大雅·行葦 | 鈞均 | | 賢 | | | |
| | 賢 | 大雅·行葦 | 鈞均 | | 堅 | | | |
| 2.千 | 千 | 邶風·定之方中 | 人 | | 田淵 | | | |
| | | 小雅·采芣 | | | 田 | | | |
| | | 小雅·采芣 | | | 天 | | | |
| | | 小雅·甫田 | 人陳 | | 田年 | | | |
| | 年 ⁷ | 曹風·鸛鳴 | 人 | 榛 | | | | |
| | | 豳風·東山 | 薪 | | | | | |
| | | 小雅·無羊 | | 溱 | | | | |
| | | 小雅·信南山 | 賓 | | | | | |
| | | 大雅·江漢 | 人 | | 田年 | 命 | | |
| 3.新 | 新 | 大雅·文王 | | | 天 | | | |
| | 薪 ⁸ | 邶風·凱風 | 人 | | | | | |
| | | 王風·揚之水 | 申 | | | | | |
| | | 鄭風·揚之水 | 人信 | | | | | |
| | | 唐風·綢繆 | 人 | | 天 | | | |
| | | 豳風·東山 | | | 年 | | | |
| | | 小雅·大東 | 人 | | | | | |
| | | 小雅·白華 | 人 | | | | | |
| 4.冥 | 冥 | 小雅·斯干 | | | | | 檻正 | 庭寧 |
| | | 小雅·無將大車 | | | | | | 頰 |

<표2>와 같이 鄭張尚芳이 in으로 보고 있는 글자는 대부분 『詩經』에서

한 자료는 『廣韻』을 대상으로 제시함에 따라 차이가 있다.

- <大雅·既醉>의 [室家之壺, 君子萬年, 永錫祚胤.]이란 韻文에 대해서 王力(2010:314-315)은 [壺年胤]을 韻腳字로 보지만, Baxter(1992:705-706)는 [壺·胤]을 韻腳字로 보고, [年]字를 韻腳字로 인정하지 않는다. 본고에서는 韻腳字의 규정에 관한 논쟁이 있는 부분을 모두 韻腳字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제한다.
- <小雅·車牽>의 [陟彼高岡, 析其柞薪.]인 경우, 王力(2010:284-285)은 [岡·薪]이 韻腳字로 보고 있지만, Baxter(1992:686)는 韻文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본고에서는 韻腳字의 규정에 관한 논쟁이 있는 부분을 모두 韻腳字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제한다.

韻腳字로 출현한 적이 있다. [壽]字는 <표1>에서 이미 제시했기 때문에 논의 외로 하며, [冥]字는 없지만, 聲符인 [冥]字로 대체한다. 1·2·3번 [亠·堅·賢·千·年·新·薪]은 眞·臻·先韻字과 押韻관계를 이루고 있어, 유일한 예외는 앞서 말한 [命]字뿐이다. 특히 [千·年]은 10례, [新·薪]은 8례로, 상당히 많은 예시가 존재하므로, 『詩經』단계에서 n韻尾로 반영되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鄭張尚芳의 입증자료와 유사한 학자도 있다. Coblin(1986:9)은 [작년]이 Tibet어의 na-nip과 대응함에 따라 [年]字를 nip으로 재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일부 방언에서 nip이 nin으로 변한 것으로 보고 있다⁹. [年]字가 Jingpo어와 Cona-monpa어에서는 nip, Bokar-Lhoba어와 Mêdog-monpa어에서는 n_ip으로 반영되며, <莊子·養生主>에서 耕部인 [名·刑·經·生]이 眞部인 [身·親·年]과 押韻하기 때문에 Coblin의 관점과 같이 [年]字가 韻尾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물론 Coblin은 ip으로 보고 있지만, 이를 眞部가 아닌 耕部로 보고 있어서 鄭張尚芳의 眞部2(ip)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뒤에서 다루겠지만 MC도 마찬가지로 主母音이 前舌인 경우 韻尾p과 n의 교체현상이 존재하여 이는 p>n뿐만 아니라, n>p란 변화도 있으므로 [年]字가 주변언어에서 韻尾로 반영된 것을 가지고 반드시 韻尾가 오래된 형태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는 고대자료에서도 확인된다. 李妍周(1995:117)이 제시한 사례를 보면 『說文解字』에서 [頂]字에 [顛也]로, [顛]字에 [頂也]로 주석을 달고 있다. [頂]字는 耕部, [顛]字는 眞部로, OC에서 眞·耕部の 상통현상이 존재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4번 [冥]字는 『詩經』에서 清·青韻字와만 押韻하며, 韻腳字 [庭·楹·正·寧·頰]인데, 이들은 鄭張尚芳(2018:262-268)이 정리한 <漢字諧聲聲符分部表>에서 모두 耕部字에 속한다. 즉 鄭張尚芳의 치명적인 문제점은 앞서 Baxter과 같이 眞部를 in과 ip으로 나누었으면, ip部の [冥]字는 왜 ip부와 押韻하지 않고 오히려 ep(耕)부와 押韻하는지 설명할 수 없다. 한편 같은 ip部인데 왜 <표2-

9 丁邦新·孫宏開 主編(2001:82-84)에서 재인용한다.

1>부터 <표2-3>인 경우는 眞部와 押韻하며, <표2-4>인 경우는 耕部와 押韻하는지에 대해서도 전혀 설명할 수 없다는 점이 문제이다¹⁰. 주변언어와의 대응관계를 통해서 일부 眞部字가 *iq*으로 반영된다고 해서 眞部를 *in*과 *iq*으로 나누어야 한다면, 元部도 *an*과 *aŋ*으로 나누어야 한다. 예를 들어 寒韻인 [胖]字가 Tibet어에서 *bong*¹¹, 심지어 표준 중국어에서도 MC.pʰaŋ²이라 鄭張尚芳이 眞部에 관한 관점을 유추하면 OC에서 [半聲]을 *aŋ*으로 재구해야 한다. 하지만 [半聲]과 陽部는 전혀 관련성이 없다. 다른 쪽의 예를 들어 [風]字가 『詩經』에서 韻腳字로서 총 6번으로 출현했으며 모두 *m*韻尾인 [心·林·欽·南]과 押韻해서 [風]字가 MOC에서 반드시 *m*韻尾였지만 Tibet어에서는 *rluŋ*¹², Derung어에서 *büŋ*¹³으로 반영된다. 그렇다면 주변언어와의 대응관계를 초점을 두었다면 [風]字를 오히려 *ŋ*韻尾로 재구해야 될 것이다. 潘悟雲(2000:139)이上古音은 Tibet어자료보다 훨씬 오래된 언어체계이므로 비교적 내부적인 자료가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듯이 주변언어와의 대응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詩經』의 押韻현상을 무시하고 眞部를 *in*

10 물론 鄭張尚芳(2018:161-162)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詩經』의 韻部를 韻母와 달리 主母音이 비슷하지만 하면 서로 押韻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관점에 대해서 白一平(2020:1-4)이 이미 언급했듯이 6母音說은 『詩經』의 押韻관계를 설명할 때 문제점이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 가능성이 있다. 첫째, 『詩經』에서 같은 韻部인 글자가 서로 같은 主母音이 아니다. 둘째, 6母音설이 『詩經』 단계보다 더 이른 시기인 단계였다. 셋째, 『詩經』 韻部를 더 세밀하게 나눌 수 있다고 하며, 본인이 첫째 가능성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지적하여, Baxter는 鄭張尚芳의 관점을 수용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潘悟雲(2000:249)에서 언급했듯이 초기의 音韻論학자들이 재구하는上古音에서 主母音이 Karlgren은 15개, 董同龢는 20개로 비교적 많았다. 이들의 관점은 鄭張尚芳과 같이 韻部를 韻輔과 같은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眞部를 대표하여 Karlgren(1954:305-306)에서 Group IX(眞部)에 해당하는 主母音이 *e*와 *ɛ*가 있으며 *e*는 4等, *ɛ*는 3等字이다. 孫玉文(2005:104-148)은 일부 학자들이 韻部를 여러 主母音으로 보고 있는 것은 교왕과적이라고 지적했으며, 같은 韻部는 主母音과 韻尾가 모두 같다고 보고 있다. 본고에서도 마찬가지로 같은 韻部를 같은 主母音과 韻尾를 가지는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鄭張尚芳의 관점을 수용하지 않는다.

11 全廣鎮(1996:321)에서 인용한다.

12 金理新(2012:250)에서 인용한다.

13 潘悟雲(2000:148)에서 인용한다.

과 iq으로 나누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潘悟雲(1994:364-372)도 鄭張尚芳과 Baxter의 관점과 같이 眞部를 in과 iq으로 나누어 보고 있다. 그 이유는 『詩經』에서 일반적으로 甲類韻과 乙類韻이 서로 押韻하지 않지만, 脂·質·眞部만 甲類韻과 押韻한다고 지적했다. 潘悟雲(1994:364-372)에서 제시한 眞部2(iq)과 眞部(in)의 교체는 주로 <표1>에 해당하는 韻文과 뒤에 <표5>에서 다루는 [矜]字에 관한 韻文 이외에 <大雅·文王>의 [躬·天]이 있다. [躬·天]에 관해서 문제는 [躬]字에 있다. [躬]字는 <大雅·雲漢>에서 侵部字인 [甚·臨], 冬部字인 [蟲·宮·宗]과 押韻하기 때문에 EOC단계에서 m韻尾이었으며, MOC에서는 m>ŋ 또는 m>n로 교체된 언어집단이 모두 존재하여 AC의 공통어에서 m>ŋ란 변화를 수용했으며, m>n로 변한 것은 <大雅·文王>의 방언으로 볼 수 있다¹⁴. 한편 潘悟雲의 문제점도 Baxter, 鄭張尚芳과 같이 眞部2(iq)만의 押韻이 하나도 없다는 점에 있다. 潘悟雲은 押韻자료뿐만 아니라 아래와 같이 諧聲관계를 제시했다.

<표3> 潘悟雲이 제시한 眞·耕·蒸韻의 諧聲 관계

| 聲符 | 眞韻 | 耕韻 | 蒸韻 |
|-----|----------|--------|----|
| 1.臣 | 堅賢賢臣繁 | 賢鏗 | |
| 2.身 | 身 | 鈔 | |
| 3.奠 | 奠 | 奠鄭 | |
| 4.眞 | 顛眞填鎮滇禛嗔顛 | 眞 | |
| 5.并 | 餅拼餅 | 并餅屏拼瓶妍 | |
| 6.黽 | 黽澠 | 黽澠 | 蠅繩 |
| 7.令 | 零令 | 零令 | |
| 8.千 | 千年邗 | 邗 | |

위의 <표3-1>·<표3-7>·<표3-8>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했으며, 나머지 <표3-2>부터 <표3-6> 중에서 <표3-3>인 [奠聲], <표3-6인> [黽聲]에 관한 韻

14 Baxter(1992:694-695)에서 [無遏爾躬]의 [躬]字를 [身]字로 취급하지만, 이에 대한 설명이 없다. 王力(2010:297-298)에서는 [躬]字로, 참고로 丘彥遂(2019:135-136)에서도 王力과 같이 [躬]字로 취급하고 있으므로, 본고에서도 [躬]字로 취급한다.

腳字는 『詩經』에서 출현하지 않기 때문에 제하며, 나머지를 순서대로 살펴보자.

<표4> 詩經에 걸친 [身聲·眞聲·并聲]의 押韻 관계 15

| 聲符 | 漢字 | 자료명 | 押韻관계 | | | | | | | |
|----|----|---------|------|----|-----|----|-----|-----|-----|-----|
| | | | 眞韻 | 臻韻 | 仙韻 | 先韻 | 蒸韻 | 庚韻 | 清韻 | 青韻 |
| 身 | 身 | 邶風·燕燕 | 淵人 | | | | | | | |
| | | 秦風·黃鳥 | 人 | | | 天 | | | | |
| | | 小雅·雨無正 | 信 臻 | | | 天 | | | | |
| | | 小雅·何人斯 | 陳人 | | | 天 | | | | |
| | | 大雅·烝民 | 人 | | | | | | | |
| 眞 | 闕 | 小雅·采芣 | | | | 淵 | | | | |
| | 填 | 大雅·桑柔 | 甸民 | | | 先 | (矜) | | | |
| | 顛 | 齊風·東方未明 | | | (令) | | | | (令) | (令) |
| | | 秦風·車鄰 | 鄰 | | (令) | | | | (令) | (令) |
| | 巔 | 唐風·采芣 | 信 | | | | | | | 芣 |
| 并 | 屏 | 小雅·桑扈 | | | | | | | (領) | |
| | | 大雅·皇矣 | | | (平) | | | (平) | | |
| | | 大雅·板 | | | | | | | 城 | 寧 |

위의 <표4>와 같이 [身聲]인 [身]字는 韻腳字로서 『詩經』에서 총 5번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押韻하는 글자는 모두 n韻尾에 해당한다. 한편 [眞聲]을 가진 [闕·填·顛·巔]이 총 5번 나타났으며, [矜·令·芣] 이외의 押韻字는 모두 n韻尾에 해당한다. [并聲]인 [屏]字는 [平·城·寧]과 押韻하며, [平]字는 [令]字와 같이 仙韻에도 속하는 다음자이다. 仙韻의 독음은 MOC 이후에 생긴 독음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 AC의 仙韻字가 예외없이 모두 元部에 해당하므로, 眞·耕部와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¹⁶. 둘째, [平]字가 『詩經』에서 韻腳字로서 총 9번으로 출현했으며,

15 다음자인 경우는 ()로 표기한다.

16 韻部와 中古音의 대응관계는 학자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지만, 仙韻字가 元部에 속하는 점에 대해서 Karlgren(1954:282, 305), 王力(2015:60-64), 董同龢(1944:123-249), Baxter(1992:370, 422)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없이 모두 같은 관점으로 보고 있다.

이와 押韻하는 글자는 모두 庚·清·青韻인 耕部字이므로, [平]字는 『詩經』 단계에서의 독음이 耕部인 것이 명확하다¹⁷. 한편 潘悟雲의 재구음을 보면 [屏]字와 押韻하는 [城]字가 OC.djeŋ, [寧]字가 OC.neŋ¹⁸이며, 모두 iŋ이 아니라 eŋ에 해당하며, 耕部字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耕部字와 押韻하는 [屏]字는 眞部2(iŋ)보다 耕部字로 규정하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 뒤에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耕韻字인 [餅]字와 [拼]字는 MC에서 각각 MC.⁵piŋ과 MC.⁶piŋ으로 반영되어 前舌母音 뒤에 후접하는 n과 ŋ의 혼동이 中後舌母音보다 많이 존재하는 것이 중국어의 일반적인 특징이므로, 이를 가지고 지나치게 분석해서 眞部를 두 가지 韻部를 나눌 필요는 없으며, Baxter, 鄭張尚芳, 潘悟雲 등의 iŋ(ing)部는 단독적인 韻部가 아니라 眞部와 耕部의 교체현상에 속한다. 결국 문제는 다시 [命·令·令·零·韻]을 眞部로 규정해야 할지 耕部로 규정해야 할지로 귀결되는데, 이를 규정하기 전에 먼저 [矜]字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表5> 詩經에 걸친 [矜]字의 押韻 관계

| 순서 | 자료명 | 韻脚字 | 王力 | 李珍華 | 陳新雄 | Baxter | 音韻 |
|-----|---------|-----|------|------|-------|--------|--------|
| | | | 2012 | 1998 | 2018 | 1992 | |
| 1 | 小雅·菀柳 | 天 | 眞en | 眞en | 眞en | 眞in | 透先開4平 |
| | | 臻 | 眞en | 眞en | 眞en | 眞in | 莊臻開3乙平 |
| | | 矜 | 眞en | 侵əm | 眞en | 眞ing | 見蒸開3乙平 |
| 2 | 小雅·何草不黃 | 玄 | 眞en | 眞en | 眞en | 眞in | 匣先合4平 |
| | | 矜 | 眞en | 侵əm | 眞en | 眞ing | 見蒸開3乙平 |
| | | 民 | 眞en | 眞en | 眞en | 眞in | 明眞合3甲平 |
| 3 | 大雅·桑柔 | 甸 | 眞en | 眞en | 眞en | 眞in | 邪眞合3甲平 |
| | | 民 | 眞en | 眞en | 眞en | 眞in | 明眞合3甲平 |
| | | 填 | 眞en | 眞en | 眞en | 眞in | 知眞開3甲平 |
| | | | 眞en | 眞en | 眞en | 眞in | 定先開4平 |
| | | | 眞en | 眞en | 眞en | 眞in | 知眞開3甲去 |
| 眞en | 眞en | | 眞en | 眞in | 定先開4去 | | |

17 <小雅·常棣>에서 [寧·生], <小雅·伐木>에서 [鳴·聲·生·聽], <小雅·節南山>에서 [寧·正], <小雅·黍苗>에서 [清·成·寧], <大雅·皇矣>에서 [屏], <大雅·江漢>에서 [定·爭·寧], <大雅·常武>에서 [庭], <商頌·那>에서 [成·聲], <商頌·烈祖>에서 [成·爭]과 押韻한다.

18 潘悟雲의 재구음은 東方語言學(www.eastling.org)에 의거하였다.

| 순서 | 자료명 | 韻脚字 | 王力 | 李珍華 | 陳新雄 | Baxter | 音韻 |
|----|-----|-----|------|------|------|--------|--------|
| | | | 2012 | 1998 | 2018 | 1992 | |
| | | 天 | 眞en | 眞en | 眞en | 眞in | 透先開4平 |
| | | 矜 | 眞en | 侵əm | 眞en | 眞ing | 見蒸開3乙平 |

李珍華·周長楫(1998:392)은 [矜]字를 侵部 əm로 규정하고 있다. 그 이유는 『說文解字』에서 [矜]字에 [矜聲]으로 주석을 달고 있어서 聲符를 통해 유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矜]字는 AC에서 蒸韻字 AC.₂kiəiŋ이지만, 위의 표와 같이 『詩經』단계(MOC)에서는 眞·臻·先韻인 眞部字와 押韻하여 n韻尾에 해당한다. 『說文解字』와 달리 『說文解字注』에서는 [矜]字를 [矜]字로 규정했으며, 聲符가 [矜聲]이 아닌 [矜聲]으로 바뀌게 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龐光華(2015:182)와 Baxter·Sagart(2014:237-238)가 다른적이 있으며, 두 학자가 모두 [矜]字를 [矜]字로 규정하는 데 긍정적인 태도이다. 그 이유는 <老子> 제30章에서 [果而勿矜]이 <帛書>의 甲·乙本에서 [矜]字를 모두 [矜]字로 표기하고 있으며, <郭店楚簡·老子甲>에서는 왼쪽 [矛], 오른쪽 [命]의 형식으로 반영된다. 이에 대해서 Baxter·Sagart는 왼쪽의 자형을 [矜]로 제시했다. 龐光華는 보충설명으로 <大徐本>¹⁹에서 [矜]字에 [居陵切]AC.₂kiəiŋ과 [居巾切]AC.₂kiəiŋ이 있으며 모두 m韻尾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矜]字가 m韻尾로 반영된 자료는 西漢 韋玄成의 <戒子孫詩>에서 [心]字와 押韻하여 m韻尾로 반영되어 [矜]字가 西漢에서 [矜]字로 오기해서 발음도 m韻尾로 바꾸었다는 것으로 보고 있다.

[矜]字는 반드시 蒸韻字와 같이 오래된 형태가 n韻尾가 아니었다. 먼저 <大徐本>뿐만 아니라 MC를 통해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集韻』에서 [矜]字가 [居觀切]AC.kiəiŋ²이란 독음도 있으며 뒤에 [矜也]로 주석을 달아 [矜]字와 [矜]字의 밀접한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矜聲]과

19 <大徐本>은 책의 명칭이 아닌, 宋代 徐鉉의 『說文解字』을 가리키며, 이와 달리 徐鍇의 『說文解字』를 <小徐本>로 칭한다. 宋代의 『說文解字』를 구별할 때 사용하는 용어이다.

[矜]字가 『詩經』단계에서 모두 n韻尾로 반영되는 점을 보아도 [矜]字가 [令聲]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아래의 표와 같이 MC에서 같은 蒸韻字인 [矜]字가 다른 蒸韻字와 다르게 출현한다.

<표6> 蒸韻3等字의 대응관계²⁰

| 漢字 | OC | AC | RC | | MC | |
|----|-----------|--------|----------|-------|-------|----------------------------|
| | 王力 (2012) | | | | | |
| 乘 | 蒸əng | 神蒸開3甲平 | ㄷziəiŋ | 穿庚青陽平 | ㄷʰiəŋ | ㄷʰsəŋ səŋ ²¹ |
| 陵 | 蒸əng | 來蒸開3甲平 | ㄷliəiŋ | 來庚青陽平 | ㄷliəŋ | ㄷliŋ |
| 蒸 | 蒸əng | 照蒸開3甲平 | ㄷtseiəiŋ | 照庚青陰平 | ㄷʰiəŋ | ㄷtsəŋ |
| 矜 | 眞en | 見蒸開3乙平 | ㄷkiəiŋ | 見庚青陰平 | ㄷkiəŋ | ㄷtein ㄷtʰiŋ ㄷkuan |
| 兢 | 蒸əng | 見蒸開3乙平 | ㄷkiəiŋ | 見庚青陰平 | ㄷkiəŋ | ㄷteiŋ |

위의 <표6>과 같이, 같은 蒸韻3等字인 경우 切韻音(AC)에서는 i(i)əiŋ형으로, RC에서는 iəŋ형, 현대 표준 중국어에서는 əŋ 또는 iŋ형으로 반영되지만, [矜]字인 경우에만 in형 또는 uan형으로 반영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서 표준 중국어의 MC.ㄷtein의 기원은 <大徐本>의 [居巾切]AC.ㄷkiəiŋ인 것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AC과 OM의 독음을 수용하지 않고, 오래된 詩經音(MOC)를 계승한 것이 틀림없다.²¹

[矜]字의 고행을 [矜]으로 보면 [命·令·荅·零·領]와 같은 어원으로 묶을 수 있게 된다. [矜]字가 詩經音에서 眞部로 반영되므로 [令聲]에 해당하는 한자 중에서 [領]字를 제외하고 MOC단계에서 眞部인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MOC의 『詩經』단계에서 [令]字에서 파생하는 글자들이 <표1>과 <표5> 합쳐서 총 20번이 출현했으며, <표1-9>·<표1-11>·<표1-12>는 耕部로, 나

20 『中原音韻』의 재구음은 李惠綿(2016 : 53-283)을 기준으로 하지만, 捲舌音聲母를 後齒莖音으로 표기하며, 그 이유는 陳宇昕·李京哲(2021:145-165)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後齒莖音 뒤에 i가 후접할 수 있는 것과 달리 捲舌音뒤에 i가 후접하기 어려운 데에 있다. 한편 유기음 부호를 (')에서 (h)로 바꾸어서 표기한다.

21 ㄷtʰiŋ은 陽平이므로 『集韻』의 [渠巾切]AC.ㄷgiəiŋ, ㄷkuan은 『集韻』의 [姑頑切]AC.ㄷkuan을 계승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머지 17례가 모두 眞部로 반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논리적으로 두 가지 규정 방법이 있다. 하나는 王力(2012:123-124)과 같이 [命·令·苓·零·領·矜]을 모두 眞部로 규정하며, 『詩經』단계에서 眞耕合韻 현상이 <표1>의 9·11·12번과 같이 총 3번이 있다. 또 하나는 丘彥遂(2019:200-211)와 같이 [命·令·苓·零·矜]을 眞部로, [領]字를 耕部로 규정하며, 『詩經』단계에서 眞耕合韻 현상이 <표1>의 11번과 같이 총 1번만이 있다. 두 가지 규정법의 차이는 하나가 諧聲관계를 엄격히 따르고, 또 하나는 詩經韻을 엄격히 따르는 것에 있는데, 두 번째 규정법이 맞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趙誠(1984:259-265)이 지적했듯이 일부 諧聲字가 『詩經』보다 훨씬 이른 시기였으며, 創字시대(EOC)가 詩經시대(MOC)보다 더 오래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EOC에서 MOC에 걸쳐서 일정한 음운변화 내지 음운교체가 이미 존재했다고 보는 것이 객관적이다. 이를 [靑·淸·倩]의 押韻 관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표7> [靑·淸·倩]의 押韻 관계

| 漢字 | 자료명 | 押韻관계 | | | | |
|----|--------|------|-----|------|-----|----|
| | | 庚韻 | 淸韻 | 靑韻 | 仙韻 | 山韻 |
| 淸 | 鄭風·溱洧 | | 盈 | | | |
| | 齊風·猗嗟 | 甥 | 名成正 | | | |
| | 小雅·黍苗 | 成(平) | | 寧 | (平) | |
| | 大雅·覺鷺 | | 成 | 涇寧馨 | | |
| 靑 | 衛風·淇奥 | (瑩) | | (瑩)星 | | |
| | 齊風·著 | (瑩) | | (瑩)庭 | | |
| | 小雅·苕之華 | 生 | | | | |
| 倩 | 衛風·碩人 | | | | 盼 | |

[倩]字는 [靑聲]이지만, 다른 [淸·靑]과 달리 n韻尾로 반영된다. 이는 A C에서 AC.tʂhen²·AC.tʂhiŋ²과 같이 다음자로 이루어져, 현대 표준 중국어에서도 [倩]字가 MC.tʂien² [靑]字가 MC.tʂhiŋ²으로, 한편 <표6>과 같이 <衛風>에서 [靑]字가 ŋ韻尾로, [倩]字가 n韻尾로 반영됨에 따라 같은 諧聲관계인 경우 詩經단계에서 이미 眞部n과 耕部ŋ의 혼동이 존재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林燾·耿振生(2018:202)은 諧聲字와 『詩經』에서 반영하는 韻

母 유형이 대체로 일치하지만, 가끔 諧聲관계와 『詩經』에서 반영하는 韻母 유형이 다른데, 이러한 경우는 일반적으로 『詩經』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命·令·蒼·零·頌·矜]인 경우도 마찬가지로, 王力和 같이 諧聲關係를 엄격히 따를 필요없이, [頌]字가 『詩經』에서 모두 耕部로 반영됨에 따라 [頌]字를 耕部로, [命·令·蒼·零·矜]字를 眞部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규정하면 眞部和 耕部の 교체는 단지 <표1-11>과 같이 하나가 된다.

2.2. 다른 韻部에서 반영하는 n韻尾와 ㄴ韻尾의 교체

<표8> 다른 韻部에서 반영하는 n韻尾와 ㄴ韻尾의 교체²²

| 순서 | 자료명 | 韻脚字 | 王力 | 丘彥遂 | Baxter | 音韻 |
|-------|-------|-----|------|------|-------------------|--------|
| | | | 2012 | 2019 | 1992 | |
| 1 | 周頌·烈文 | 人 | 眞en | 인정안함 | 眞in | 日眞開3甲平 |
| | | 訓 | 文ən | 諄ən | 文un ²³ | 曉文合3去 |
| | | 刑 | 耕eng | 耕əŋ | 耕eng | 匣青開4平 |
| 2 | 大雅·抑 | 言 | 元an | 元an | 인정안함 | 疑元開3平 |
| | | 行 | 陽ang | 陽aŋ | | 匣唐開1平 |
| | | | | | | 匣庚開2平 |
| | | | | | | 匣唐開1去 |
| 匣庚開2去 | | | | | | |
| 3 | 小雅·車牽 | 薪 | 眞en | 眞en | 인정안함 | 心眞開3甲平 |
| | | 岡 | 陽ang | 陽aŋ | | 見唐開1平 |

위에서 다루는 교체 이외에 나머지 ㄴ韻尾과 n韻尾의 교체는 <표8>과 같이 총 3번 있다. 그 중에서 <표8-2>와 <표8-3>인 경우는 Baxter(1992: 714-715, 686)에서 韻脚字로 규정하지 않기 때문에 제외하며 유일한 것은 <표8-1>이다.

<周頌·烈文>의 押韻關係는 위의 <표8-1>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듯이, 王力和 Baxter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人·訓·刑]이 각각 眞·文·耕部에 해당

22 [躬]字와 [天]字, [倩]字와 [盼]字의 押韻 關係는 위에서 이미 다룬 적이 있으므로 제한한다.

23 Baxter(1992:425-434)에서 文部를 in과 un으로 나누었다.

하며 眞·文·耕 3가지 韻部의 合韻현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설령 3가지 韻部의 合韻현상을 인정하더라도, 문제는 眞部인 [人]字와 耕部인 [刑]字가 『廣韻』에서 모두 平聲字이지만, 文部인 [訓]字는 去聲字만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訓]字는 해당 방언에서 文部 去聲이 아닌 眞部 平聲인 다음자가 존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集韻』에서 [訓]字가 다음자이며, 하나는 『廣韻』의 [許運切]AC.huĩəĩn²⁴과 같이 [吁運切]AC.huĩəĩn²⁴이며, 去聲字이다. 다른 하나는 [松倫切]AC.ɕzuiəĩn, 즉 諄韻 平聲字이다. 한편 [人]字와 [刑]字는 『集韻』과 『廣韻』에 수록된 음이 모두 같기 때문에 문제는 [訓]字에 있는 것이 틀림없다. [訓]字는 『詩經』에서 총 2번 출현했으며, 다른 경우는 <大雅·抑>에서 眞韻 去聲인 [順]字와 押韻하며, 『廣韻』에서 수록한 [訓]字의 음과 일치한다. 따라서 『集韻』에서 반영된 두 다음자가 MOC 詩經시대에서 이미 존재했으며, 방언적인 차이일 수 있다고 추측된다²⁴. 文部와 耕部の 교체는 <표8-1> 1레뿐이었으며, 『詩經』에서는 일반적인 合韻現象이 아닌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上古韻部와 中古音의 대응관계를 보면 眞·諄韻이 眞部와 文部에 모두 대응하지만, 文韻은 단지 文部만과 대응하고 있다. 따라서 [訓]字를 MOC 詩經단계에서 文部 去聲으로 규정하되 <周頌·烈文>의 방언에서 [訓]字가 眞部 平聲이었다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MOC 이전에 두 가지 발음으로 갈라졌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면 <표8-1>의 押韻관계 [人·訓·刑]을 위의 위과 같이 음운적으로는 眞耕合韻으로 볼 수 있다. 결국 ŋ韻尾와 n韻尾의 교체는 다른 韻部에서는 없으며 오직 眞部와 耕部에만 있는 이유는 그 主母音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관해서는 2.2.에서 자세히 다루기로 한다.

24 去聲字에 관해서 일부 학자들은 去聲을 s韻尾로 보고 있으며, 본고에서는 s韻尾에 대해서 다루지 않는다.

3. 『廣韻』에서 반영하는 n韻尾와 η韻尾의 교체

『廣韻』에서 m과 n의 交替는 [邯·箔·唵·帘] 4字, m와 η의 交替는 [語·贛·臙·贛·汎·梵·騰·騰·琴] 9字 밖에 없지만, n과 η의 교체는 총 40字(93音)로 정리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詩經』의 韻腳字와 韻腳字의 聲符를 기준으로 해당하는 다음자를 韻部별로 耕部·蒸部·眞部·文部·元部, 그리고 韻部를 규정하기 어려운 것²⁵, 총 6가지로 나누고, 蒸部·文部·元部에 해당하는 글자 수는 각각 1자씩이라 하나로 묶어, 耕·眞部の 상통현상 때문에 하나로 묶어서 규정하기 어려운 한자들과 총 3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한다. 韻部별로 살펴보기 전에 먼저 η과 n의 교체를 等별로 살펴보자.

<표9> 等별로 본 n韻尾와 η韻尾의 교체

| 等 | 음운수 | 비율 | 각 韻의 음운수 |
|----|-----|--------|----------------------|
| 1等 | 6 | 6.74% | 寒2·魂1·東1·登2 |
| 2等 | 8 | 8.99% | 山1·耕4·庚1·麥1·江1 |
| 3等 | 28 | 31.46% | 仙8·清7·眞7·蒸3·陽1·元1·鐘1 |
| 4等 | 47 | 52.81% | 先24·青23 |

<표9>를 보면 n韻尾와 η韻尾의 교체 중에서 4等に 해당하는 음절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서 3等이 31.46%로, 1等과 2等は 상당히 적은 편이었다. 2·3等字의 특징은 主母音이 前·中舌이며, 4等은 前舌에 해당한다. 따라서 n韻尾와 η韻尾의 교체는 主母音의 前後舌의 비율로 보면, 前舌>中舌>後舌로 정리할 수 있으며, 前舌의 主母音이 압도적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교체를 통해서 OC에서 AC까지 n韻尾와 η韻尾의 혼동이 존재하는 언어집단에서 모든 韻

25 규정하기 어려운 한자 중에서 일부 한자는 사실 AC의 音韻과 MOC 詩經韻의 대응관계를 통해서 韻部를 규정할 수 있는 한자도 포함된다. 해당자의 形聲字가 『詩經』에서 韻腳字로서 출현하지 않는 한자, 그리고 해당자의 形聲字가 『詩經』에서 1개 이상의 韻部로 출현하는 한자를 모두 규정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묶어서 보기로 한다.

에 걸쳐 혼동이 일어났다기보다는 주로 主母音이 前舌, 일부 中舌인 경우에 발생하는 경향이 강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아래의 <표12>와 <표 14>를 보면 韻部별로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교체는 주로 眞·耕部에 분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10> 각 학자의 陽聲韻部의 재구음

| | 甲類陽聲韻部 | | | | | 乙類陽聲韻部 | | |
|------------------|--------|------|-----|-----|-----|--------|--------|------------------|
| | 蒸部 | 冬部 | 東部 | 陽部 | 耕部 | 眞部 | 文部 | 元部 |
| 王力 (2012) | əng | ung | ong | ang | eng | en | ən | an |
| 陳新雄 (2018) | əŋ | əuŋ | auŋ | aŋ | eŋ | ɛn | ən | an |
| 李方桂 (2017) | əng | əngw | ung | ang | ing | in | ən | an |
| Baxter (1992) | ing | ung | ong | ang | eng | in | in | an |
| | | | | | | ing | un | en on |
| B&S (2014) | əŋ | uŋ | oŋ | aŋ | eŋ | in(ir) | ən(ər) | an(ar) en(er) |
| | | | | | | iŋ | un(ur) | on(or) |
| 鄭張尚芳 (2018) | uŋ | uŋ | oŋ | aŋ | eŋ | in | un | an en on |
| | | | | | | iŋ | un | on |

위의 표와 같이 陳新雄의 재구음을 제외한 다른 학자의 재구음을 보면 眞·耕部の 主母音이 e와 i만 있으며, 다른 韻部과 달리 主母音이 前舌母音이다²⁶. 眞·耕部の 主母音을 前舌로 재구하는 것은 AC과의 대응관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Baxter(1992:497-500)에 의하면 耕部는 2等 耕韻과 3等 清·庚韻 그리고 4等 青韻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眞部는 2等 山韻과 3等 眞(諄)·臻韻 그리고 4等 先韻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耕部和 眞部에서 A C의 1等字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말을 바꿔서 하자면 4等字가 해당 韻部에서 1等字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耕部和 眞部の 교체에 관해서 현대 중국 표준어에서도 같은 교체가 존재

26 a는 前後舌의 구별이 없다.

한다. 竺家寧(1992:453-460)에 의하면 AC의 ㄷ·梗攝字가 MC에서 주로 əŋ·iŋ·uŋ·iuŋ으로 반영되며, AC의 m韻尾가 MC의 n韻尾로 변했으며, AC의 n韻尾와 ŋ韻尾는 그대로 n韻尾와 ŋ韻尾로 반영된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예외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耕部인 [馨]字가 <周頌·載芣>에서 耕部인 [寧]字와 押韻하며, 『廣韻』의 曉母 青韻AC.ɕheŋ, 『中原音韻』에서 庚清韻 R C.ɕxiəŋ, 현대 중국어 표준에서는 MC.ɕein으로 변화했으며, 이것은 일반적인 음운변화가 아닌 특수변화로 볼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현상을 반영하는 한자는 아래의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으며 해당자는 모두 梗攝字이다.

<표11> 표준 중국어에 반영된 n韻尾와 ŋ韻尾의 교체²⁷

| 漢字 | AC | MC | 漢字 | AC | MC |
|----|--------|-------|--------|-------------------|-------------------|
| 偵 | 徹清開3甲平 | ɕtʂən | 拼 | 幫耕開2平 | ɕpʰin |
| | 知庚開2去 | | 滂清開3甲去 | pʰin ² | |
| | 徹清開3甲去 | | 勁 | 見清開3甲去 | tɕin ² |
| 貞 | 知清開3甲平 | ɕtʂən | 肯 | 溪登開1上 | tɕin ² |
| | | | | | ʔkən |

추가적으로 MC에서는 볼 수 없지만 [津]字AC.ɕtsiəŋ과 [罍]字AC.hiəŋ²이 北京방언에서는 각각 tɕiŋ과 eiŋ²으로 일부 眞韻字가 ŋ韻尾로 반영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²⁸.

3.1. 眞部와 耕部字에서 반영하는 n韻尾와 ŋ韻尾의 교체

<표12> 耕·眞部字에 해당하는 다음자

| 순서 | 聲符 | 漢字 | 音韻 | 순서 | 聲符 | 漢字 | 音韻 |
|----|----|----|--------|----|----|----|-------|
| 1 | 平聲 | 平 | 並仙開3甲平 | 6 | 𠂔聲 | 鴉 | 見先開4平 |
| | | | 並庚開3平 | | | | 疑先開4平 |
| 2 | 平聲 | 逕 | 溪山開2平 | 7 | 頃聲 | 穎 | 溪耕開2平 |
| | | | 疑先開4平 | | | | 疑麥開2入 |
| | | 徑 | | | | | 匣先開4上 |

27 해당하는 현대 중국어음은 『新華字典』에서 제시한 음을 기준으로 한다.
 28 古音小鏡 (www.kaom.net)를 통해서 조사한 [北京市區A]방언이다.

| 순서 | 聲符 | 漢字 | 音韻 | 순서 | 聲符 | 漢字 | 音韻 |
|----|----|-------|-------|----|----|----|--------|
| 3 | 并聲 | 耕 | 疑耕開2平 | 8 | 令聲 | 令 | 溪青開4上 |
| | | | 見青開4去 | | | | 來仙開3甲平 |
| | | | 並先開4平 | | | | 來清開3平 |
| | | 並青開4平 | 來清開3去 | | | | |
| | | 並先開4平 | 來青開4平 | | | | |
| | | 幫庚開2去 | 來青開4去 | | | | |
| 4 | 壬聲 | 涎 | 定先開4去 | 9 | 勻聲 | 勻 | 來先開4平 |
| | | | 定青開4上 | | | | 來青開4平 |
| | | | 定先開4上 | | | | 來青開4去 |
| | | 蜓 | 定青開4平 | | | | 來先開4平 |
| | | | 定青開4上 | | | | 來青開4平 |
| | | | 定青開4上 | | | | 來青開4去 |
| 5 | 丁聲 | 町 | 透先開4上 | 10 | 千聲 | 邗 | 群眞開3乙平 |
| | | | 透青開4平 | | | | 來青開4平 |
| | | | 定青開4上 | | | | 來青開4去 |
| | | 圻 | 透青開4上 | | | | 匣先合4平 |
| | | | 透先開4上 | | | | 曉耕合2平 |
| | | | 透青開4上 | | | | 泥先開4平 |
| 6 | 𠂔聲 | 邢 | 溪先開4平 | 11 | 彘聲 | 彘 | 來眞開3甲平 |
| | | | 匣青開4平 | | | | 來眞開3甲去 |
| | | | 見先開4平 | | | | 來青開4平 |
| | | 麤 | 溪先開4平 | | | | 來眞開3甲平 |
| | | | 溪青開4去 | | | | 來青開4平 |
| | | | 溪青開4去 | | | | 來青開4平 |

위의 <표12>와 같이 耕部字에서 n韻尾와 ŋ韻尾의 교체는 총 21개 한자가 있으며, 眞部에서 n韻尾와 ŋ韻尾의 교체는 7부터 11까지 총 9개 한자가 있다. 먼저 韻部의 규정을 보면 [平]字에 관해서는 위에서 이미 설명한 적이 있으므로 제하며, 나머지 2부터 7의 [𠂔聲]·[并聲]·[壬聲]·[丁聲]·[𠂔聲]·[頃聲]은 모두 『詩經』에서 耕部만으로 출현하기 때문에 OC에서 耕部字로 규정할 수 있다²⁹. 眞部인 경우는 『詩經』에서 [令聲]·[勻聲]·[千聲]·[彘

29 [𠂔聲]인 경우 [涇]字가 <大雅·梟鷙>에서 [寧·清·馨·成], [經]字가 <小雅·小旻>에서 [程·聽·爭]字와 押韻한다. [并聲]인 경우 [屏]字가 <小雅·桑扈>에서 [領]字, <大雅·皇矣>에서 [平]字와 押韻한다. [壬聲]인 경우 [庭]字가 <齊風·著>에서 [青·瑩] <小雅·斯干>에서 [楹·正·冥·寧], <大雅·常武>에서 [平], <周頌·閔予小子>에서 [敬]字, [醒]字가 <小雅·節南山>에서 [定·生·寧·成·政·姓], [程]字가 <小雅·小旻>에서 [經·聽·爭·成], [霽]字가 <大雅·常武>에서 [驚]字와 押韻한다. [丁聲]인 경우 [丁]字가 <周南·兔置>에서 [城], <小雅·伐木>에서 [嚶]字와 押韻한다. [𠂔聲]인 경우 [刑]字가 <大雅·蕩>에서 [聽·頃], <大雅·抑>에서 [政], <周頌·烈文>에

聲]이 『詩經』에서 모두 眞部로 반영되어 7부터 11까지를 眞部로 규정할 수 있다³⁰. 耕部와 眞部の 빈번한 상통현상에 대해서는 위에서 이미 설명했으며, <표12>을 통해서 보면 眞部>耕部로 교체되는 한자보다 耕部>眞部로 교체되는 한자가 더욱 많다. 이는 위에서 설명한 MC에서 반영하는 교체현상과 일치한다. 그 이유는 眞部字와 耕部字의 母音이 모두 前舌母音이며 眞部字의 韻尾가 n, 耕部字의 韻尾가 η라서 前舌母音의 영향으로 後舌的 韻尾 η이 前舌的 韻尾 n으로 변하는 것이 일반적인 변화이기 때문일 것이다.

3.2. 蒸·文·元部字에서 반영하는 n韻尾와 η韻尾의 교체

<표13> 蒸·文·元部字에서 반영하는 n韻尾와 η韻尾의 교체

| 순서 | 聲符 | 漢字 | 音韻 | 순서 | 聲符 | 漢字 | 音韻 |
|----|----|--------|--------|----|----|-------|--------|
| 1 | 睪聲 | 睪 | 明仙開3甲上 | 2 | 刀聲 | 認 | 日真開3甲去 |
| | | | 明眞開3甲上 | | | | 日蒸開3甲去 |
| | | 澗 | 明耕開2上 | 3 | 亘聲 | 絀 | 匣寒合1平 |
| | | | 明眞開3上 | | | | 見登開1平 |
| 2 | 刀聲 | 神蒸開3平 | 亘 | | | 匣寒合1平 | |
| | | 泥先開4 去 | | | | 見登開1平 | |
| | | 審陽開3甲平 | | | | | |

<표13>의 [睪聲]은 『詩經』에서 蒸部로, [刀聲]은 『詩經』에서 文部로, [亘聲]은 『詩經』에서 元部만으로 반영되었기 때문에 <표13>에 해당하는

서 [人·訓]와 押韻한다. [頃聲]인 경우 [頃]字가 <大雅·蕩>에서 [聽·刑], <大雅·瞻卬>에서 [成], [頰]字가 <小雅·無將大車>에서 [冥]字와 押韻한다. 상술한 押韻관계 중에서 [人·訓·刑]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韻腳字가 耕部字이므로 해당 聲符를 耕部로 규정할 수 있다.

30 [令聲]에 관해서는 앞에 이미 언급했으며, [勻聲]인 경우는 [均]字가 <小雅·皇皇者華>에서 [駟·詢], <小雅·節南山>에서 [天], <小雅·北山>에서 [濱·臣·賢], <大雅·行葦>에서 [堅·鈞·賢]과 押韻한다. [千聲]인 경우는 [千]字가 <邶風·定之方中>에서 [人·田·淵], <小雅·采芣>에서 [田·天], <小雅·甫田>에서 [田·陳·人·年], [年]字가 <曹風·鸛鳴>에서 [榛·人], <爾風·東山>에서 [薪], <小雅·無羊>에서 [溱], <小雅·信南山>에서 [賓], <小雅·甫田>에서 [田·千·陳·人], <大雅·江漢>에서 [人·田·命]과 押韻한다. [隣聲]에 관해서 [鄰]字가 <秦風·車鄰>에서 [顛·令], [鄰]字가 <唐風·揚之水>에서 [命·人]과 押韻하며, 상술한 韻腳字는 모두 眞部字이다.

글자를 1 蒸部, 2 文部, 3 元部로 규정할 수 있다³¹. 蒸·文·元部字인 경우는 主母音이 前舌이 아닌 <표9>와 같이 학자들의 재구음이 모두 中後舌에 해당한다. 유일한 後舌母音인 韻部는 文部이다. 文部인 경우 Baxter(1992:426-434)는 in과 un으로, Baxter·Sagart(2014:288)는 ən과 un으로 나누었으며, [刃聲]인 경우는 主母音이 中舌的인 in(ən)에 해당한다³². 물론 詩經단계에서 文部를 두 韻部로 나눌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현단계에서 정확히 단언할 수 없지만, 文部の 主母音이 後舌이라 하더라도 後舌母音에 걸친 n韻尾와 ŋ韻尾의 교체 비율은 상당히 적은 편이다.

3.3. 규정하기 어려운 한자에서 반영하는 n韻尾와 ŋ韻尾의 교체

<표14> 규정하기 어려운 한자에서 반영하는 n韻尾와 ŋ韻尾의 교체

| 순서 | 聲符 | 漢字 | 音韻 | 순서 | 聲符 | 漢字 | 音韻 | | |
|----|----|----|--------|--------|----|----|-------|---|--------|
| 1 | 公聲 | 鈞 | 端東開1去 | 6 | 夬聲 | 夬 | 曉先合4平 | | |
| | 合聲 | | 喻仙合3甲平 | | | | 曉清合3去 | | |
| 2 | 夬聲 | 孃 | 曉仙合3甲平 | | | 7 | 放聲 | 於 | 曉先合4平 |
| | | | 影仙合3甲平 | | | | | | 曉清合3去 |
| | | | 群清合3甲平 | | | | | | 徹仙開3甲上 |
| 3 | 青聲 | 精 | 清先開4去 | | | 8 | 𠂔聲 | 𠂔 | 知蒸開3甲平 |
| | | | 莊耕開2平 | 澄江開2平 | | | | | |
| | | 倩 | 清先開4去 | 邪鍾開3甲去 | | | | | |
| | | | 清清開3甲去 | 曉元合3平 | | | | | |
| 4 | 困聲 | 硯 | 溪魂合1上 | 9 | 夬聲 | 夬 | 定先開4去 | | |

- 31 [毘聲]인 경우 [繩]字는 <周南·螽斯>에서 [繩], <小雅·采芣>에서 [弓], <大雅·抑>에서 [承]字와 押韻한다. 陳宇昕·李京哲(2022b)에서 언급했듯이 [弓]字가 侵部字와 押韻하지만, 그것은 일부 방언의 특징이며 기본적으로 [弓]字는 耕部字이다. 따라서 상술한 韻脚字는 모두 耕部字이다. [刃聲]인 경우는 [忍]字가 <小雅·小弁>에서 [隕]字와 押韻하며, 이는 모두 文部字이다. [巨聲]인 경우는 [畎]字가 <衛風·淇奥>에서 [閭·諶], [垣]字가 <衛風·氓>에서 [關·漣·言·遷], <小雅·小弁>에서 [山·泉·言], <大雅·文王有聲>에서 [翰], <大雅·板>에서 [藩·翰], [宣]字가 <大雅·公劉>에서 [原·繁·歎·獻], <大雅·崧高>에서 [翰·蕃], <大雅·江漢>에서 [翰], [緄]字가 <魏風·伐檀>에서 [檀·幹·漣·塵·饗]과 押韻하며 이들이 모두 元部字이다.
- 32 Baxter를 비롯한 일부 6母音說 학자들은 元部를 an, en, on으로 나누었다. 하지만 en部에 해당자가 en으로 반영하는 다음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en部的 성립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의심스러우며, 이에 대해서 별도로 다룬다.

| 순서 | 聲符 | 漢字 | 音韻 | 순서 | 聲符 | 漢字 | 音韻 |
|----|----|----|--------|----|----|----|-------|
| 5 | 蚩聲 | 蚩 | 溪蒸開3乙平 | | | 屢 | 端青開4去 |
| | | | 徹仙開3甲上 | | | | 端青開4上 |
| | | | 徹清開3上 | | | | 定先開4去 |

<표14>의 4·5·6·7·8·9는 해당 聲符가 『詩經』에서 출현하지 않아 『詩經』만으로 韻部를 규정하는 데 다소 무리가 있다. 하지만 해당자의 다음자 교체관계를 보면 모두 前舌과 中舌母音으로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 [鈇]字의 경우는 東韻과 仙韻의 교체를 이룬다. 이것은 단순한 음운변화가 아닌 [鈇⇔鉛]·[兗⇔兗]·[宥⇔宥]과 같이 [公聲]과 [仝聲]의 혼용현상으로 인해서 파생하는 다음자일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으며, Baxter·Sagart(2014:28)가 지적한 바와 같이 고대 문자에서는 [ㄷ]와 [ㄱ]의 혼용현상이 존재했다.

2 [𦉳聲]의 경우, [𦉳·環·還]은 元部이지만, [𦉳]字는 耕部이다³³. 따라서 [𦉳]字가 『詩經』에서 元部인지, 耕部인지 단언하기 어려우며, [𦉳聲]의 음운변화는 EOC에서 MOC 사이에 이미 일어났을 가능성이 크다.

3 [靑聲]에 대해서는 앞서 이미 설명했듯이 [倩]字가 『詩經』단계에서 真部, 다른 [靑聲]字는 耕部로 반영되며 이것이 EOC에서 MOC 사이에 일어난 음운변화로 보는 데 타당하다. [緝]字는 『詩經』에서 韻腳字로서 출현한 적이 없으므로, 詩經단계에서 이것이 真部인지, 耕部인지 정확히 단언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 [靑聲]이 耕部이므로, EOC단계에서 耕部로 볼 수 있을 것이다.

33 [𦉳]字가 <齊風·還>에서 [還·間·肩], [環]字가 <齊風·廬令>에서 [𦉳], [還]字가 <魏風·十畝之間>에서 [間·閑], <邠風·伐柯>에서 [踐], <齊風·還>에서 [間·肩·𦉳]과 押韻하여 해당 韻腳字가 모두 元部字이다. 한편 [𦉳]字가 <唐風·杕杜>에서 [菁·姓]과 押韻하며 해당자가 모두 耕部이다.

5. 결론

본고에는 『詩經』과 『廣韻』에서 반영하는 舌內鼻音韻尾와 喉內鼻音韻尾의 교체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詩經』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真部를 in과 ij 두 韻部로 나누기 어려우며, 그 이유는 ij만의 韻文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교체는 真部の in과 ij의 교체보다 真部和 耕部の 교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命·令·零·苓·領·矜]을 真部로 규정해야 할지 耕部로 규정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논쟁이 존재하지만, [命·令·零·矜]字을 真部로, [領]字를 耕部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詩經시대와 諧聲시대의 시대적 차이가 상당히 크며, 詩經단계에서 같은 聲符인 諧聲字가 반드시 같은 韻部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규정한다면 『詩經』에 걸친 真部和 耕部の 교체는 단지 1字뿐이었다.

3) 韻尾 n과 ŋ의 교체는 과반수가 4等字이므로, 주로 前舌母音 뒤에서 일어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현대 표준 중국어에서는 韻尾 n과 ŋ의 대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체가 존재하는 점을 보면 n韻尾와 ŋ韻尾의 구별이 있는 언어집단에서도 前舌의인 主母音의 영향으로 n韻尾와 ŋ韻尾의 혼동이 존재한다. 더불어 n韻尾가 ŋ韻尾로 혼입되는 것보다 ŋ韻尾가 n韻尾로 혼입되는 것이 보편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다.

[ABSTRACT]

The change of Nasal codas n and ㄴ from Old Chinese to
Ancient Chinese

Chen Yuxin(Dongguk University)

Lee, KyungChul(Dongguk University)

In this paper I explored the change of the nasal codas n and ㄴ from Old Chinese to Ancient Chinese centered at the rhyme materials of Shi-Jing and Multi-sound characters in Guang-Yun. Findings can be summarized in the following 3 points.

1)The majority of the rhyme relations between nasal codas n and ㄴ in Shi-Jing are alternations between Group Zhen(真) and Group Geng(耕). Some scholars have suggested by this alternation that the Group Zhen(真) needs to be divided into in and in. This paper believes that it is more appropriate to consider this as an alternation of Group Zhen(真) and Group Geng(耕) than to divide Group Zhen(真) into 2 Rhyme Groups.

2)The phonetic component of Jin(矜) refers not to Jin(今), but rather to Ling(令). Therefore, Jin(矜) shares the same phonetic component as Ming(命), Ling(令), Ling(零) and Ling(苓). Moreover, it belongs to the Group Zhen(真) in Shi-Jing and the coda-ㄴ in Ancient Chinese. On the other hand, it is not always the case that words with the same phonetic component belonged to the same Rhyme group in the Shi-Jing era. For example, the alternation between phonetic component Qing(青) and phonetic component Qiong(豐), coda-ㄴ and coda-n appeared way ahead of the Shi-Jing era.

3)The majority of the alternations of coda-n and coda-ㄴ in Guang-Yun are found in division 4 in Rhyme Xian(先) and Rhyme Qing(青) which indicates that the alternations of coda-n and ㄴ are related to the ma

in vowel. The main vowel is the most likely to alternate in the case of front vowels, which is followed by central vowels, and the least frequently in the case of back vowels.

KeyWords: Old-Chinese, Ancient-Chinese, Nasal Codas, Shi-Jing, Multi-Sound Characters

[참고문헌]

■ 단행본

- 陳新雄, 『古音研究』, 五南圖書出版公司, 2018, pp.1-816.
- 董同龢, 『上古音韻表稿』, 中央研究院歷史語言研究所, 1944, pp.1-249.
- 丁邦新·孫宏開, 『漢藏語同源詞研究(二), 漢藏、苗瑤同源專題研究』, 廣西民族出版社, 2001, pp.1-651.
- 郭錫良, 『漢字古今音手冊』, 商務印書館, 2010, pp.1-535.
- 顧炎武, 『音學五書』, 中華書局, 1982, pp.1-555.
- 金理新, 『漢藏語系核心詞』, 民族出版社, 2012, pp.1-484.
- 李惠綿, 『中原音韻箋釋-韻譜之部』, 臺大出版中心, 2016, pp.1-419.
- 林燾·耿振生, 『聲韻學』, 三民書局, 2018, pp.1-358.
- 李珍華·周長楫, 『漢字古今音表』, 中華書局, 1998, pp.1-471.
- 龐光華, 『上古音及相關問題綜合研究: 以複輔音聲母為中心』, 暨南大學出版社, 2015, p.1-754.
- 潘悟雲, 『漢語歷史音韻學』, 上海教育出版社, 2000, pp.1-400.
- 丘彥遂, 『新編毛詩韻讀(第二版)』, 新文京開發出版股份有限公司, 2019, pp.1-211.
- 全廣鎮, 『漢藏語同源詞綜探』, 台灣學生書局, 1996, pp.1-412.
- 王力, 『漢語語音史』, 商務印書館, pp.1-742.
- _____, 『詩經韻讀 楚辭韻讀』, 中國人民大學出版社, 2012, pp.1-466.
- _____, 『清代古音學』, 中華書局, 2013, pp.1-218.
- _____, 『漢語史稿』, 中華書局, 2015, pp.1-641.
- 鄭張尚芳, 『上古音系(第二版)』, 上海教育出版社, 2018, pp.1-638.
- William H. Baxter, *A handbook of Old Chinese Phonology* De Gruyter, 1992, pp. 1-922.
- William H. Baxter·Laurent Sagart, *Old Chinese A new Reconstruction* Oxford University, 2014, pp.1-431.
- Bernhard Karlgren, *Compendium of Phonetics in Ancient and Archaic Chinese* The Museum of Far Eastern Antiquities, 1954, pp.211-367.
- _____, *Grammata Serica Recensa* The Museum of Far Eastern Antiquities, 1957, pp.1-332.
- 국문논문
- 李京哲, 「多音字에 걸친 陽聲韻의 互用에 관한 考察」, 『日本語學研究』 58, 韓國日本語學會. 2018, 101-114면.

陳宇昕·李京哲, 「上古音에서 中古音에 걸친 舌齒音의 變化」, 『日本語學研究』 70, 韓國日本語學會. 2021, 145-165면.

■ 중문논문

李妍周, 『漢語同源詞音韻研究』, 國立台灣大學中國文學研究所博士論文. 1995, pp.1-280.

潘悟雲, 「上古脂, 質, 真的再分部」, 『語苑新論』, 上海教育出版社. 1994, pp.364-372.

孫玉文, 「上古構擬的檢驗標準問題」, 『語言學論叢』 31, 商務印書館. 2005, pp.104-148.

趙誠, 「商代音系探索」, 『音韻學研究』 1, 中華書局. 1984, pp.259-265.

鄭張尚芳, 「上古韻母系統和四等、介音、聲調的發源問題」, 『溫州師範學院學報(社會科學版)』 4, 溫州師範學院. 1987, pp.67-90.

■ 기타 자료

白一平, 「漢譯本序」, 『漢語上古音手冊』, 上海教育出版社. 2020, pp.1-4.

中國社會科學院語言研究所詞典編輯室, 『新華字典(第11版)』, 商務印書館. 2011, p.248, 270, 386, 387, 640.

古音小鏡, www.kaom.net 검색일: 2022/04/30

東方語言學 www.eastling.org 검색일: 2022/04/30